

왕실기록과 의서 속에 나타난 유이태의 행적

오준호, 박상영,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Yu, Itae's Deeds revealed in Royal Family Records and Medical Books

Junho Oh, Sangyoung Park, Sangwoo Ahn

Center for Medical History and Literature, Korea Institution of Oriental Medicine

Yu, Itae was a noted doctor who was active in the period of King Hyojong and King Sukjong. He wrote the medical books such as <Silheomdanbang>, <Inseogyeonmunrok>, <Marjinyeon>, etc. and once participated in Royal medical council for curing the disease of King Sukjong. He is also famous for Yu itae tale which is wide spread in the area of Youngnam.

This research is aimed at, on the basis of the precedent research, arranging his medical activities by tracing his deeds through the contents of historical records and his writings, based on which, clarifying several facts about compilatory process of <Silheomdanbang>.

Yu, Itae was versed in medicine and a paragon of filial piety. He left some records about measles when he was 41, and at that time his principle of medicine about measles was alread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uch an experience and academic idea, he finally came to write <Marjinyeon>. His broad knowledge of diseases beside measles was arranged in "Silheomdanbang"[Inseo Travelogue] in 1709. Through this book, we can be aware that Yu Itae ranged over the experience-based medical procedures from other regions and also had an interest in even medical knowledge coming from abroad even though he inhabited Sancheong.

His medical reputation spread not only to Seoul but also into the royal palace in his later days, thereby coming to get the royal command to participate in Royal medical council for curing King Sukjong of the disease. With the worsening of his health, Yu, Itae passed away one year after returning home.

Keywords : Yu Ita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history

I. 서론

劉爾泰는 효종과 숙종대에 활동하던 조선의 명의였다. 그는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麻疹篇』 등의 의서를 저술하였으며, 숙종의 병에 의약동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영남 일대에 널리 퍼져 있는 유이태(혹은 유이태, 유희태) 설화와도 관련이 있을 만큼 의술로 명성이 높았다.¹⁾ 유이태 설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원도, 경남 합천, 경상도 진양 등을 배경으로 한 것

1) 설화에 있어서는 유이태(劉爾泰, 劉以泰)와 柳義泰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는 본 연구의 대상이고, 후자는 허준의 스승으로 추정되는 醫人으로 1516년(중종11년) 산청군 신안면 산정마을에서 출생하였고, 급서면 화계 지구에서 의술활동한 인물이다. 전해지는 설화는 이 두 인물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설화에 신연당이라는 유이태(劉以泰)의 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화 내용 일부는 유이태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이 밖의 설화는 사실상 어디까지가 유이태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유이태의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런 논의를 배제하고자 한다. 유이태 설화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2009; 16:1-34.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성과 의미. 한국의사학회지. 2010;23(1):11-22.

접수 ▶ 2011년 3월 2일 수정 ▶ 2011년 3월 17일 채택 ▶ 2011년 3월 17일
 교신저자 안상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9-2 LG에클라트 308호
 Tel 02-790-2016 Fax 02-795-2015 E-mail answer@kiom.re.kr

들도 있어 역사와 설화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점도 있지만, 산청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설화들의 경우 산청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역사 속의 유이태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²⁾

유이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김호³⁾는 역대 기사들을 중심으로 유이태의 행적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일차 사료들을 통해 유이태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쓴 글로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의서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면밀히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왕실기록문헌⁴⁾과 유이태 저술의 내용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단방』의 편집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왕실기록을 통해 본 유이태의 행적

유이태(劉爾泰, 1652~1715)는 효종 3년 태어나 숙종 41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호는 猿鶴山人⁵⁾, 麟西⁶⁾, 新淵堂, 자는 伯源⁷⁾이며 본관은 居昌이다. 그는 거창 유씨 19세손으로 아버지 劉潤祺의 3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昌寧 曹氏를 아내로 맞아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⁸⁾ 거창유씨세보에는 劉以泰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는 백원이고 호는 신연당이다. 통덕랑을 지냈다. 재질

2)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2009;16:1-34.

3) 김호. 『조선의 명의들』. 살림출판사. 2007:50-61.

4) 왕실기록문헌으로는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DB검색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DB는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5) 『麻疹篇』 서문 “猿鶴山人”

6) 『實驗單方』, 『麟西聞見錄』 서문 “麟西”

7)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1988. “新淵堂”, “伯源”

8)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1988.

9) 『거창유씨세보』에는 이름이 劉以泰로 되어 있다. 을미년(1715) 2월 27일卒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1988.

이 비범하였다. 의학에 매우 밝아 마음은 항상 소탈하였으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천거되어 중국으로 가서 천자의 병을 치료하고는 특별히 금자광록대부이부상서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고사하여 받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또 효행이 순수하고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이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 을미 2월 27일 졸하였다. 묘는 산청 서모읍 명구동에 술좌로 안장되었다.(字伯源, 號新淵堂, 通德郎. 才質超. 凡醫學極明, 心常爲賤而名自鳴世, 薦入皇朝, 以治天子之病, 而特受金紫光祿大夫吏部尙書, 固辭不受, 歸本國. 且以孝行純至, 有鄉道狀, 乙未二月二十七日卒. 墓山清西毛音明球洞, 戌坐)¹⁰⁾

그가 중국으로 건너가 천자의 병을 고쳤다는 내용은 류이태에 얽힌 ‘낙반식벽상토’ 설화와 관련 있다.¹¹⁾ 유이태 생존 당시는 明清 교체기로, 그가 장성하여 의술을 펼쳤던 시기는 淸 강희제(聖祖)가 즉위한 이후이다. 세보와 설화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는 淸의 聖祖를 치료한 셈인데, 당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편, 세보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는 효행이 지극한 인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올렸다는 장계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¹²⁾

그는 숙종년간에 이미 의학으로 이름을 떨쳤다. 『실험단방』이 쓰여진 다음 해인 숙종 36년(1710), 당시 50세였던 숙종에게 두통과 瘡이 생겼으나 치료가 더디어지자 외부의 의사들을 데려다 議藥하게 된다. 이때 모두 세 명의 의사가 거론되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유이태이다. 유이태에 대한 왕실기록은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이명이 “(중략) 산음현에 사는 유이태, 아산현감 신우정, 안산 선비 박태초 등은 의술이 모두 정미로운데, 신우정과 박태초는 일찍이 앞서 의약을 위해 약방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들어와 함께 진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속히 올라오게 하여 의약할 때에 증상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중략) 上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었다. (願命曰 …… 山陰縣居劉以泰, 牙山縣監愼禹定, 安東士人朴泰初, 醫術並皆精詳, 而愼禹定·朴泰初, 則曾前亦以議藥, 入參藥院, 雖不可使之入診,

10)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1988.

11)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2009;16:1-34.

12) 김호. 『조선의 명의들』, 살림출판사. 2007:50-61.

而速令上來, 以爲議藥時, 論症商確之地, 何如? …… 上曰, 依爲之)¹³⁾

기록에 따르면 유이태는 당시 山陰縣(지금의 산청)에 살고 있었으며, 서울에까지 의학의 고명함이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우정과 박태초는 이미 議藥同參의 경험이 있었으나 유이태는 이전에 의약동참에 참석한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그의 명성은 이미 서울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조정과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숙종 36년의 이 기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이명이 “아산현감 신우정과 외방 의사 유의태 박태초 등이 도성에 오는 도중이나 上의 환후가 날로 점차 차도가 있어 의약을 물을 필요가 없으니 모두 아래로 내려보내심이 어떠하십니까?”라고 하였다. 上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었다.(頤命曰, 牙山縣監愼禹定, 外方醫劉以泰·朴泰初等, 來到城中, 而上候日漸差勝, 今無議藥之問, 竝爲下送, 何如? 上曰, 依爲之)¹⁴⁾

그로부터 약 20여일 뒤 유이태는 명을 받고 서울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숙종의 병세가 호전되어 조정에서는 유이태를 포함한 세 명을 다시 내려보내지게 된다. 따라서 유이태는 1710년에는 숙종 치료에 참여하지 않았다.

司憲府에서 논핵하기를, “영남의 醫人 劉以泰는 內局에서 재촉하여 전주에 이르렀는데, 병을 핑계대어 오지 않다가 끝내는 집으로 돌아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편하기를 도모했으나, 重典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拿問하여 엄중히 조사하여 처리하소서. 道臣은 마땅히 재촉해 올려 보냈어야 하는데도 內局에 頌報하고는 그가 곧바로 돌아가도록 맡겨두었으니, 청컨대 從重推考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憲府論嶺南醫人劉以泰, 自內局催促, 而行到全州, 稱病不進, 終乃還家, 偃蹇圖便, 合置重典, 請拿問嚴覈處之, 道臣所當催促上送, 而頌報內局, 任其徑還, 請從重推考, 從之)¹⁵⁾

그로부터 3년 뒤인 숙종 39년(1713)에 유이태는 다

시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다. 당시 53세였던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들지 못했으며 종기를 앓고 있었는데,¹⁶⁾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앞의 예와 같이 외부의 의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이 때 유이태는 서울로 향하던 중 全州에서 질병을 얻어 서울에 당도하지 못하게 된다.¹⁷⁾ 이를 불충히 여긴 司憲府에서는 유이태의 推考 문제를 숙종에게 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갈등들은 잘 해결된 듯 보인다. 사헌부의 추고 논의가 있는 뒤 4일 후에 숙종은 유이태를 정식으로 軍職에 붙여 議藥에 同參시켰기 때문이다. 이 때 유이태는 兵曹 中9품 副司勇에 관직을 제수하게 된다.¹⁸⁾

이이명이 “유의태는 호남 영남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졌기에 장계를 내려 의약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의술이 비록 다른 사람의 견해를 뛰어넘는 것은 없지만 또 함부로 약을 투여하지 않으며 사람됨이 순후하여 부릴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로하여 痰火로 인한 고질이 있어 밤새도록 신음하니 옆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두창을 앓은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황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별히 기간을 단축시켜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上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었다.(頤命曰, 劉以泰, 有名於湖·嶺間, 故降下議藥同參矣. 其術業, 雖無出人之見, 而亦不妄下藥, 爲人淳厚可使, 而但年老, 有痰火痼疾, 終夜呻吟, 傍人不堪, 又未經痘云, 其情勢誠可愍念矣. 特爲減下, 使之下去, 何如? 上曰, 依爲之)¹⁹⁾

유이태는 이때부터 다음해 6월까지 숙종의 질병에 의약동참하게 된다.²⁰⁾ 이듬해 6월이 되어 당시 藥方都提調였던 李頤命은 유이태는 노환을 걱정하여 그의 귀향을 건의하였고, 숙종이 이를 허락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이태는 연로한 데다가 痰火로 인한 고질

13) 『승정원일기』 숙종 36년(1710) 1월 21일 (정해)

14) 『승정원일기』 숙종 36년(1710) 2월 11일 (병오)

15) 『숙종실록』 숙종 54권, 39년(1713) 기사) 12월 16일(기축)

16)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38-39.

17)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2월 16일 (기축) “劉以泰, 行到全州營下, 托以有病, 偃臥不起, 道臣所當催督上送, 而只據其呈狀, 頌報內局, 拖引時月, 任其慢蹇, 終至於徑歸其家, 事體道理, 豈容如是? 不可無警責之道, 請當該監司, 從重推考.”

18)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12월 20일 (계사) “今日藥房入診時, 醫人劉以泰, 卽爲放釋, 令該曹口傳付軍職, 同參議藥事, 榻前定奪.”, “兵曹口傳政事, 副司勇”

19) 『승정원일기』 숙종 40년(1714) 6월 20일 (경인)

20) 『승정원일기』 숙종 40년(1714) 4월 9일 (경진) “醫官金有鉉·柳瑞·丁時梯·權聖徵·李時聖·趙慶基·許坵·吳重高·方震夔·玄孝綱·玄悌綱·權聖經 劉以泰入侍.”

병으로 밤새 신음하였다고 한다. 그는 의약동참의 공로로 말 한 마리를 받고 귀향하였고²¹⁾, 후에 해를 넘겨 결국 죽게 된다.²²⁾ 당시 그의 나이 64세 때였다. 현재, 그의 묘는 선청군 생초면 갈전에 남아 있다.²³⁾

이런 정황을 보면 『실험단방』은 그의 말년의 저작으로 이 시기에 그의 명성이 한양에까지 알려져 있었으며 책 저술 이후 얼마간 숙종의 의약동참으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제조 민진원이 “비가 내린 뒤에 바람이 차갑습니다. 몸 상태가 어떠십니까?”라고 업드려 아뢰었다. 상께서 “별 일 없다. 단지 어지러운 것이 낫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었다. (중략) 민진원이 “유이태는 영남의 명의인데, 黃栗이 어지러움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항상 말하였다고 합니다. 진어하고자 하니 어떠합니까?” 상께서 “반드시 복용하리라.”라고 하시었다. (鎮遠進伏曰, 雨後風氣淒涼, 聖候何如? 上曰, 無事矣, 但眩氣未愈矣, …… 鎮遠曰, 劉以泰, 嶺南名醫也, 常云黃栗, 治眩最妙云, 進御, 何如? 上曰, 當進服矣)²⁴⁾

유이태의 명성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영조 원년, 영조의 어지럼증에 黃栗을 진어하면서 이것이 영남의 명의 유이태의 처방임을 밝히고 있다. 『실험단방』에 황율과 어지럼증에 대한 처방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 황율을 이용한 유이태 고유의 처방이 존재하였으며, 또 그의 명성이 사후에도 전국적으로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행적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승정원일기』 기사에 따르면 그는 숙종 39년(1713) 처음 종9품 副司勇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산청군 생초면 갈전에 위치한 유이태 墓碣陰記에는 安山 군수에 제수되었으며 정5품 通德郎²⁵⁾을 지냈다고 되어 있다. 또 『太醫院先生案』에는 종1품 승록대부의 품계²⁶⁾가

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숙종의 질환 시 의약동참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가 1713년 처음 관직에 제수되어 1715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종9품에서 종1품까지 올라섰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유이태는 1710년 이전에는 의약동참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1710년 당시 관직도 없었다. 李頤命이 신우정에 대해서는 ‘아산현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박태초에 대해서는 ‘안산 선비’, 유이태에 대해서는 ‘산음현에 사는’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유이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차차 설명되리라고 생각된다.

2. 의서를 통해 본 유이태의 행적

유이태는 『麻疹篇』, 『實驗單方』, 『麟西聞見錄』을 저술하였다. 『마진편』 혹은 『劉爾泰麻疹篇』은 麻疹 치료 전문 의방서이다.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전해져 오다가 지은이의 후손으로부터 朴周憲에게 전해진 후 1931년 진주에서 간행되어 현재 비교적 많은 전본들이 남아 있다. 책에는 저자 자신의 序文과 朴周憲의 謹記가 있다. 서문에 “歲在丙午下漸猿鶴山人劉爾泰自記”라고 되어 있어 김두중은 정종 2년(丙午, 1786)에 유이태가 저술하였다고 하였다.²⁷⁾ 그러나 이는 유이태의 생몰연대(1652~1715)와 맞지 않는다. 서문에 의하면 자신이 40여년 동안 스스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진방』을 썼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가 64세까지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진방』 역시 말년의 저작임일 알 수 있다. 간지의 誤記를 가정하면, 저술 시기는 임오년(壬午, 1702), 병술년(丙戌, 1706), 갑오년(甲午, 1714) 가운데 하나로 짐작된다.

『인서견문록』은 일찍이 미키사카에(三木榮)가 『朝鮮醫書誌』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2책의 사본을 소개하고 麟西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194조의 병증으로 나누어 적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그는 “일반적으로 유포되고 경험방 또는 문견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들 중에는 단순히 비망기와 같은 것들이 많지만 이 책은 이러한 경험방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것에 속한다.”라고 하여 그 내용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책의 내용으로 보아 純祖년간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하였다.²⁸⁾ 그가 소장했던 책은 현재 일본 武田 杏雨書屋에

21) 『승정원일기』 숙종 40년(1714) 6월 24일 (갑오) “劉以泰... 各兒馬一匹.”

22) 『거창유씨세보』에 을미년(1715) 2월 27일 졸(卒)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1988.

23) 안상우 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연구보고서, 2009:188-198.

24) 『승정원일기』 영조 원년(1725) 5월 28일 (을축)

25) 산청군 생초면 갈전에 위치한 劉以泰 墓碣陰記 “通德郎居昌 劉公以泰之墓” 안상우 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연구보고서, 2009:188-198.

“通德郎”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1988

26) 『太醫院先生案』 『議藥同參先生案』 “劉以泰 安山崇祿”

27)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p.404.

2책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것의 사본이 소장되어 있다.²⁹⁾ 최근 국내 개인 소장본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1책으로 되어 있다.³⁰⁾ 여기에는 서문이 실려 있어 미키사카에 소장본과는 차이가 있다.

『실험단방』과 『인서견문록』을 비교해본 결과 이 두 책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중의 필사본이었다. 또 『실험단방』의 서문³¹⁾과 국내 개인 소장 『인서견문록』의 서문³²⁾을 보면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하였다. 『인서문견록』의 서문에는 “기축년(1709)³³⁾ 늦봄 하순에 麟西老夫 劉爾泰 쓰다.”³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1709년 유이태가 이 책을 저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적들에는 유이태가 직접 했던 경험이나 교류했던 의학지식들이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그의 행적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활동 장소와 관련된 기록

『실험단방』과 『마진편』에 유이태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그의 거처와 관련된 것이다. 그는 산청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묘소 역시 산청으로 되어 있다. 또 앞서 『승정원일기』나 『숙종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영남지방의 醫人이었기 때문에 全州를 거쳐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

다. 『마진편』에는 두 가지 의안을 통해 유이태가 산청에서 몸소 겪은 사실이 적혀 있다.

산청현에 한 사찰에서 임신년(壬申, 1692) 겨울, 승려들이 麻疹을 앓았는데 모두 우물물을 마시고 갈증이 나면 다시 마시곤 했더니 한 명도 죽지 않았다. 마진은 陽에 속하여 熱이 많기 때문이다.(山淸縣, 有一刹, 壬申冬, 閣梨患疹, 皆飲井水, 渴則復飲, 而無一人見敗者. 蓋疹屬陽而熱多也)³⁵⁾

임신년(壬申, 1692) 14세 처자가 疹이 이미 나왔다가 또 가라앉았다. 疹毒이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 가슴이 뛰라 할 수 없게 아프고 胃가 문드러지는 것 같았으며 쥐구멍처럼 입 속에서 연기가 났다. 연기가 나는 것에 소독음, 우황고를 사용하였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 火를 공격하는 것보다 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무가산, 월경수를 4-5주발 사용하였더니 연기 나는 것이 조금 멈추었으나 한 식경쯤 지나니 다시 연기가 났다. 의식이 없고 기운이 막혀 죽음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아인진 초한 것에 쌀을 적셔 넣고 차로 5주발 마시게 하였더니 연기가 그치고 斑疹 역시 사라졌으며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 잘 조리하며 수일을 보냈더니 나왔다. (壬申冬, 有十四歲處子, 患疹既出, 而又沒疹, 毒內攻, 心慌胃爛, 烟出口中, 如鼠穴, 生烟者, 用消毒飲, 牛黃膏, 無分效, 倉卒思量, 攻火莫如水連[運], 用無價散, 月經水四五碗, 則烟出者少止, 食頃復出, 神昏氣塞, 死在須臾, 用野人乾炒, 漬糯米, 茶灌下五碗, 後煙止, 而瘕亦盡, 透精神且回, 善爲調攝計日收功)³⁶⁾

위의 두 기록은 비교적 상세한데, 자신의 경험을 빌려 麻疹의 특성과 기이한 變症을 설명하고 있다. 두 처방에서 공히 보이는 임신년은 유이태의 생몰연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1692년에 해당한다. 그의 나이 41세 때 일이다. 이 때 이미 마진에 대해 상당 수준의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신년 당시 마진에 대해서는 丁若鏞 역시 자신의 『麻科會通』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조선에서는 만력(41년) 계축(光海君 5년)부터 마진이 처음 유행하여(甲寅까지) (중략) 다시 12년 뒤 강희(31년) 임신(肅宗 18년)에 마진이 유행하였다.”³⁷⁾라고 하여 당

28)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증보판, p.142

29) 청구번호 : 古7671-68-1 ,古7671-68-2

30) 안상우 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연구보고서, 2009:188-198.

31) 『實驗單方』 “余觀人之一生, 無病者蓋鮮矣. 然使病者, 能知其調治之方, 則必不至損傷之患, 可不慎歟! 余以平日雜病之經驗, 所得聞之單方, 隨錄於一冊, 以備來後救療之方, 雖非醫家全書之詳, 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 赤陽暮春下澣 麟西老夫 劉爾泰識.”

32) 『麟西聞見錄』 序文 “余觀夫人之一生, 無病者蓋鮮矣. 然夫使病者, 能知其調治之方, 則必不知[至]損傷之患, 可不慎歟. 余以平日之雜病所經驗, 所得聞知[之]單方, 隨錄於一冊, 以備後來, 救療之方, 雖非醫門全書之詳, 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爾. 屠維赤奮若仲秋之月 麟(西)老夫書.” 다음 연구에서 재인용. 안상우 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연구보고서, 2009:188-198.

33) 안상우 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연구보고서, 2009:188-198.

34) 『麟西聞見錄』 “屠維赤奮若仲秋之月 麟西老夫書.” 『麟西聞見錄』과 『實驗單方』은 이중의 필사본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實驗單方』 서문에는 같은 위치에 “赤陽”이라고 되어 있는데 『麟西聞見錄』에 있는 “屠維赤奮”의 오기로 생각된다.

35) 『麻疹篇』 「通治」

36) 『麻疹篇』 「麻疹變症」

시 마진이 전국적인 규모였음을 실증해 준다.

앞의 기록에서는 질병의 발생지가 ‘산청현’의 한 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진에 걸린 승려들이 차가운 우물물을 계속 마신 덕분에 죽은 이가 없었다고 자신이 본 바를 설명하면서 마진이 열증이며 양증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³⁸⁾

이 부분은 그의 의학관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痘와 麻疹이 유사하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痘는 陰에 속하고 臟에 속하는데 반해 疹은 陽에 속하고 腸에 속한다고 하였다.³⁹⁾ 여기에서 陰陽은 열증이나 아니냐를 나타낸 것이고, 臟腑는 질병이 생기는 근원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疹이 痘와 달리 열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이다.

뒤의 치험례는 『麻疹變症』에 기록된 것으로 자신이 목도한 것 가운데 마진의 병증이 기이하게 변한 경우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이 의안에서도 처음에 주로 火를 끄는 약들을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疹이 열성질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상의 차도가 없어 火를 끄는 대신 水를 운행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水克火의 원리를 사용하여 水를 다스려 간접적으로 火를 제어한 것이다.

앞의 『마진편』과 『마과회통』을 통해 그의 의안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그가 산청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단방』의 내용을 보면 평안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보인다. 유이태는 들기름 [法油]과 人糞을 써서 怪疾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신사년의 괴질 때 사용하여 효과를 보았다⁴⁰⁾고 적고 있다. 그의 생물연대로 미루어 보면 신사년은 1701년에 해당한다. 역사 기록에도 1701년 11월 경에 평안도에 染病과 牛疫이 치성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다.⁴¹⁾ 또 浮腫 치료법으로 ‘乾山’에서 채취한

능수버들[凌水柳]을 사용하라고 적어 놓았는데⁴²⁾, 이 역시 평안도 중화군에 위치한 산 이름이다.⁴³⁾

산청에 거처했던 유이태가 한 때 평안도에 살았던 것일까? 신사년 기록과 건산에 대한 기록은 유이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의학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평소 온갖 병에 대한 경험과 얻어들은 單方을 그때때 한 책으로 기록하여 훗날 救療하는 방도로 갖추고자 하였으니, 비록 醫家の 全書처럼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로 쓰이는 일에 萬一의 보탬이 될 것이다.”⁴⁴⁾

『실험단방』 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실험단방』은 온전히 유이태의 경험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가 목격하고 전해 들은 처방이나 방법들도 실고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처방들을 지칭한 것이다.

2) 활동 시기와 관련된 기록

두 번째는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실험단방』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실험단방』에는 牛方芩蓮湯이 등장하는데, 유이태는 이 약에 대해 “신축년과 임인년에 陽毒이 유행하였을 때 이 약을 써서 효과를 보았다.”⁴⁵⁾고 적어 놓았다. 그의 생물연대를 고려해 보면 각각 1661년과 1662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때 유이태는 불과 10살 정도로, 이런 처방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경우 역시 간접적으로 알게된 치법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월경이 고르지 못할 때는 四物黃狗丸, 益母草丸이 신기한 효과가 있다. 脾胃의 상태가 좋을 때는 측백잎과 총백을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經候不調, 四物黃狗丸, 益母草丸, 神效. 脾胃好者, 側栢葉并葱白, 煎服)

37) 『麻科會通』「吾見篇 年次第四」“我東自大明萬曆(四十一年)癸丑(光海五年), 疹始行(至甲寅) …… 後十二年康熙(三十一年)壬申(肅宗十八年), 疹行” 丁若鏞, 『한국의학대계36 麻科會通』, 1994:430-431.

38) 김호는 유이태가 승려들에게 우물물을 먹게 하였다는 식으로 풀이하였는데, 文意로 보았을 때 유이태의 치험례라기보다는 목격담에 가깝다. 김호, 『조선의 명의들』, 살림출판사, 2007: 50-61.

39) 『麻疹篇』「序文」“其疹之發於外者, 與痘相似, 而熱有陰陽之異, 發有臟腑之別. 痘者, 陰也臟也. 疹者, 陽也腑也.”

40) 『實驗單方』“辛巳怪疾時, 法油【들기름】爛煮, 中入人糞, 楸子火而糞黑後, 笮飲, 卽差.”

41) 김두중, 『한국의학사문화대연표』, 탐구당, 1981:431.

42) 『實驗單方』“以食浮全體浮者, 採凌水柳煎之, 先以匙端微洽吮之, 更以綿漬之, 塗滿身二三巡. 若過沾口, 則女死. 厥柳左右各生一葉, 而根則如薤根, 在乾山內.”

43) 『新增東國輿地勝覽』 제52권 「平安道」 “中和郡 …… 坤開山, 乾山이라고도 하는데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44) 『實驗單方』“余以平日雜病之經驗, 所得聞之單方, 隨錄於一冊, 以備來後救療之方, 雖非醫家全書之詳, 亦有補於人生日用之萬一云.”

45) 『實驗單方』“辛丑壬寅陽毒流行, 用此見效.”

한편, 유이태는 월경이 고르지 못할 때[經候不調]에 四物黃狗丸을 쓰라⁴⁶⁾고 하였다. 사물황구환은 처방 안에 누런 개[黃狗]가 들어가는 특이한 처방이다. 黃度淵은 『醫宗損益』에서 이 처방이 “任應會의 처방”이라고 밝혀 놓았다.⁴⁷⁾ 임응회는 『壬申疹疫方』을 저술한 任瑞鳳의 아들로서 그 역시 숨씨 좋은 의사였다고 한다.⁴⁸⁾ 임서봉은 영조 4년(1728) 李麟佐의 난[戊申亂]으로 죽었으며 그의 아들 역시 南原으로 귀향을 가게 된다.⁴⁹⁾ 임서봉과 임응회의 생몰연대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⁵⁰⁾, 활동 시기로 보아 유이태는 임응회의 아버지인 임서봉보다도 연배가 앞선다. 유이태는 이미 1715년에 노환으로 사망하였지만, 임서봉은 1725년 무렵, 활동이 왕성하던 장년층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이태가 임서봉의 아들이 만든 사물황구환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듣고 『실험단방』에 실었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목구멍이 막혀 한 잔의 물도 내려가지 않을 때는 봉사(곱게 가루낸다)를 흰 꿀에 개어 작은 삼베주머니 속에 넣은 후 이로 그 약주머니를 머금고 누워 있으면, 그 약이 침과 합해져서 저절로 목구멍 속으로 흘러 들어가 점점 저절로 통하게 된다.【정유산약】(喉塞酌水不通, 硃砂細末, 調白清, 納於小麻囊中, 以齒含而臥, 則厥藥合涎, 自然流入喉中, 漸漸自通.【丁酉山藥】)

또 본문 중에 “丁酉山藥”이라고 밝힌 처방⁵¹⁾이 있다. ‘정유산약’ 속의 정유산은 西山 丁學淵 (1783~1859)으로, 다산 정약용의 장남이다. 그는 그는 젊어서부터

의술에 뛰어나 궁중에 드나들기도 하였는데,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농학과 의술 등 실용적인 학문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十病函海』(일본 천리대 천리도서관 소장)라는 의학 관련 서적을 남기기도 하였다.⁵²⁾ 그런데, 그의 생몰연대는 유이태卒 이후보다 한참 후대이다. 이치상 유이태가 정유산의 처방을 기록할 수는 없다.

사물황구환이나 정유산약은 『실험단방』이 성립 이후 필사 과정을 거치면서 몇몇 내용들이 첨삭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필사본들이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이할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물황구환의 창방자인 임응회나 정유산약의 주인공인 정학연과 같이, 의학 수준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들의 처방들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가치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첨가한 후대 필사자도 상당한 의학 정보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보인다.

『실험단방』 안에 들어 있는 시기와 관련된 기록들을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보면 유이태 자신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들은 기록, 혹은 후인이 첨가한 기록들이었다. 기록 안에서 유이태의 행적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당대 우수 경험 처방들을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필사 과정에서 후인이 첨가한 내용들 역시 당시에 기이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해지는 것들이다.

3) 교류한 의가와 의학지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는 자신의 직접 경험 뿐만 아니라 당대의 의학지식들을 수집하여 책에 수록하였다. 『실험단방』에는 이런 흔적들이 다수 남아 있다. 본문 중에 보이는 『廣谷神方』, 『神農藥經驗篇』, 『岑南單方』 등의 의서들은 유이태가 탐독했던 당시의 의서들로 보인다. 이 외에 “丁酉山藥”⁵³⁾, “望雲亭藥”, “葛處士의 처방[葛處士之方]” 등은 특정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변 지인들의 처방을 인용한 부분들이다. 이 가운데 『광곡신방』은 4번, 『잠난단방』은 2번 등장

46) 『實驗單方』 “經候不調, 四物黃狗丸, 益母草丸, 神效. 脾胃好者, 側栢葉并葱白, 煎服.”

47) 『醫宗損益』 권11 「婦人門」 “四物黃狗丸, 治經血不調. 熟地黃, 當歸, 川芎, 芍藥, 使香附各五兩, 黃狗一隻去腸膜蒸搗, 和丸梧子大. 米飲或溫酒吞下百丸. (任應會方)”

48) 『青城雜記』 권4 “其子應會, 坐累配南原, 亦以善醫稱.”

49) 『青城雜記』 권4 “瑞鳳坐逆, 死於戊申亂, 故滅其名也.”

50) 『壬申疹疫方』은 영조 28년(1752) 유행한 紅疹을 치료한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다. 『青城雜記』에서는 임서봉이 영조 4년(1728) 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는다. 기존에 임신진역방에 대해 알려진 사실과 『青城雜記』의 언급이 서로 모순된다. 만약 『青城雜記』의 말을 신뢰한다면, 『임신진역방』은 1752년이 아니라 1692년의 역병 치료 경험을 기록한 서적이 된다. 한편, 이 1692년은 유이태 『마진편』에 실려 있는 앞의 두 가지 의안의 연도와 일치한다.

51) 『實驗單方』 “喉塞酌水不通, 硃砂細末, 調白清, 納於小麻囊中, 以齒含而臥, 則厥藥合涎, 自然流入喉中, 漸漸自通.【丁酉山藥】.”

52) 김영진. 「西山 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一考」. 『다산학』. 2008;12:91-92.

53) 丁酉山藥은 후대인이 필사 과정에서 보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앞의 설명에 상술되어 있다.

할 정도로 비중있게 사용되었다. 廣谷, 峇南, 望雲亭은 특정 인물의 호로 보이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丁西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약용의 큰 아들인 정학연(1783~1859)이다. 葛處士는 숙종 당시에 지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지만 숙종대왕의 明陵 전설과 관련 있는 인물로, 숙종은 갈쳐사라는 노인을 만나 현재의 西五陵인 명릉에 능을 쓰게 되었다고 전지고 있다.

『실험단방』에는 이 밖에도 성명 미상의 海光乾巽國醫師가 알려준 처방, 淸國名醫 鄭散朝로부터 알려진 天王膏 등이 실려 있다. 해광건손국 의사의 경우, 조선과 왕래가 있던 타국의 의사로 보인다. 지금은 얻을 수 없어 쓸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처방 속에 등장하는 삼태기[籠]는 단순한 삼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국 의사인 정산조의 경우 특이하게도 이름이 밝혀져 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사료를 찾아 보았지만 같은 성명의 醫人은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전했다고 밝혀 놓은 천왕고 역시 약재 구성이 밝혀져 있지 않아 상고하기 어렵다. 하지만 “淸國名醫 鄭散朝에게 물어 보니”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국 사람으로서 조선에 와 있었던 의사로 생각된다. 이들 기록을 통해 유이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전해진 의학 정보까지 수집하고 기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유이태는 의학에 조예가 깊고 효행이 지극한 인물이다. 기록에는 단순히 효행이 깊었다고만 적혀 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오래도록 회자되었던 것은 학문이나 기술적인면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이태는 마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여, 41세 때에는 이미 麻疹에 대한 의학관을 확립하였다. 그는 이런 경험과 학술사상을 바탕으로 『마진편』을 저술하기에 이른다. 마진 이외의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1709년 『실험단방』(혹은 『인서문견록』)에 정리된다. 이 책을 통해 그가 산청에 거처하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험방들을 두루 섭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수집한 의학지식 중에는 廣谷, 峇南, 望雲亭 등 실존 인물들에 대한 단서들도 들어 있어 당시 재야 의가들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려준다. 유이태는 국내 의학지식 뿐만 아니라 국외 의학지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실험단방』에 실려 있는 海光乾巽國이나 淸國으로부터 들어온 의학 지식들은 당시에 의학교류 정황을 알려주는 생생한 증거들이다.⁶⁶⁾

〈Table 1〉 유이태가 『실험단방』에 수록해 놓은 당대 의학지식들

병증 및 목적	처방명	주요 약재	출전	비고
痰厥頭痛 ⁵⁴⁾	미상	完靑, 糯米	廣谷神方	
大頭癩 ⁵⁵⁾	미상	狗肝 (付之)		
全身毛髮盡落 ⁵⁶⁾	미상	眞油 黑荏粥		
髮疔 ⁵⁷⁾	미상	蒼耳葉(塗醋, 付腫)	神農藥經驗篇	
生痔 ⁵⁸⁾	미상	牛吉麻內牛垢		
頭瘡 ⁵⁹⁾	미상	蜈蚣 (插之)	峇南單方	
夜目不見 ⁶⁰⁾	미상	牛肝, 蝙蝠糞		
喉塞 ⁶¹⁾	미상	硼砂, 白淸	丁西山	
痰厥頭痛 ⁶²⁾	加味半夏白朮天麻湯	半夏 陳皮 麥芽炒 一錢五分, 白朮 神曲炒 防風 羌活 各一錢, 蒼朮 人參 黃芪 天麻 白茯苓 澤瀉 各五分, 乾干三分, 黃柏酒炒二分, 干五片	望雲亭	
染疾 예방 ⁶³⁾	石鳥散	蒼朮二錢, 霍香 陳皮 半夏 厚朴 各一錢, 烏藥八分, 石菖蒲 甘草 各七分, 干葱二	葛處士	藿香正氣散 가감방
染疾로 죽어갈 경우 ⁶⁴⁾	미상	籠上塵	海光乾巽國醫師	지금은 얻을 수 없어 쓸 데 없는 처방
色勞 ⁶⁵⁾	天王膏	미상	淸國名醫, 鄭散朝	

54) 『實驗單方』 “痰厥頭痛, 完靑【太田虫蛸】去頭翅足, 炒黑爲度, 糯米【眞米】, 炒黃, 右爲末, 假令糯米二合則完靑三十介也. 右末, 每二錢式, 調服於半夏白朮天麻湯. 此藥三四十貼爲限, 而始服調末二錢, 此後調末一錢五分, 試其無毒, 乃調二錢式. 此完靑糯米乃神方云. 【廣谷藥】”

55) 『實驗單方』 “大頭癩, 蓋項部病也. 每始初於耳根耳後, 而多出於前項下. 此頭若出, 則先寒戰大端, 以純色大浮. 若腫濃而浮氣次次引去, 無端孔出於浮處, 犯至於胃, 則次次皮垢, 黃水自流於孔及垢處, 人不知此病焉, 於焉間過三日易矣. 若過三日, 則莫可救矣. 不日內, 付狗肝然後, 可生. 急買狗肝於屠家, 無則急捉家狗, 可治矣. 寒戰連生云. 【此藥廣谷神方】”

『실험단방』은 유이태의 저술 이후 전사과정에서 당시의 유명 처방들이 첨가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당대의 의학지식을 수집한 전사자들의 솜씨 역시 보통을 뛰어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유이태의 『실험단방』은 매우 수준 높은 경험처방들을 담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전파되어 있으며 전사자들 역시 일정 수준의 의학지식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실험단방』은 상당기간 秘傳 되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유이태의 의학적 명성은 말년에 서울 뿐 아니라 궁안에까지 이르게 되어 1710년과 1713년에는 숙종의 질병에 의약동참의 명을 받게 된다. 그는 건강상태 악화로 이듬해 귀향한 다음 한 해 뒤에 별세하게 되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치법은 상당기간 회자되곤 하였다. 유이태와 그의 저작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이루어진다면 17~18세기 의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 유이태 간략 연보

- 1652년 출생
- 1692년 麻疹이 유행하여 이에 대해 기록하고 치험례 남김
- 18세기 초 『麻疹篇』 저술 (1702년, 1706년, 1714년 중 하나로 추정)
- 1709년 『實驗單方』(『麟西聞見錄』) 저술
- 1710년 숙종의 두통과 瘡에 의약동참으로 발탁
- 1713년 숙종의 병에 다시 의약동참의 명을 받음
- 1715년 사망(을미 2월 27일)
- 1725년 영조 어지러움증에 유이태의 경험방이 사용됨

참고문헌

- 56) 『實驗單方』 “三十餘歲男，失火，經燬又勞成造後，全身毛髮盡落，出於氣脈篇上。氣不能下通，則毛髮盡落。眞油眼二三斗服，黑在粥數斗連服，則髮還生云。【廣谷神方】”
- 57) 『實驗單方』 “髮疽，蒼耳葉，塗醋灸乾，復塗醋付腫，連付。消毒小微濃。【廣谷神方】”
- 58) 『實驗單方』 “神農藥經驗篇云，若難騎牛，刮牛吉麻【질막】內牛垢，塗痔後，付上藥。”
- 59) 『實驗單方』 “頭久瘡不差，蜈蚣去頭足，燒存性作末，塗於心，而數三次插之即差。【岑南單方】”
- 60) 『實驗單方』 “夜目不見，牛肝多穿孔，蝙蝠糞作末，納孔，煮出，薰其臭於眼，亦食其肝。【岑南】有眼疾人，烹椒水及大豆黃卷湯服則效。”
- 61) 『實驗單方』 “喉塞酌水不通，硼砂細末，調白清，納於小麻囊中，以齒含而卧，則厥藥合涎，自然流入喉中，漸漸自通。【丁西山藥】”
- 62) 『實驗單方』 “痰厥頭痛病，頭部冷，有眩氣，眼昏，皆嘔吐。若無是則非痰厥云。痰厥，用加味半夏白朮天麻湯三四十貼，半夏陳皮 麥芽炒 一錢五分，白朮 神曲炒 防風 羌活 各一錢，蒼朮人參 黃芪 天麻 白茯苓 澤瀉 各五分，乾干三分，黃柏酒炒二分，干五片。水三保兒，煎至一保兒，食遠服。忌生冷雞豬酒麵房事，亦不觸冷。○此藥望雲亭藥。”
- 63) 『實驗單方』 “石烏散，蒼朮二錢，霍香 陳皮 半夏 厚朴 各一錢，烏藥八分，石菖蒲 甘草 各七分，干三葱二，煎服，連三貼。此葛處士之方。服三貼，雖與染疾人同處，不染，且預服，尤好。服藥前後累日，忌祭祀飲食。”
- 64) 『實驗單方』 “染疾幾至死境，不發汗時也。籠上塵，篩之一匙或半匙，青藍，搗之，以溫水出汁。先通四關，連注病口，即時回生起坐。此藥海光乾巽國醫師之方也。益汁難得，益染亦好也。然非今時之可得也，則可謂無用之方也。”
- 65) 『實驗單方』 “少年一人，若色勞，所食常在上焦不下，故問於清國名醫鄭敬朝，則此氣血俱虛之症，用天王膏二劑，則所食必下云。”
- 66) 중국의 이름난 醫藥인 明鑑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實驗單方』 “中國名醫[醫]藥明鑑”

1. 劉爾泰. 『麻疹篇』. 回春軒藥方. 1931.
2. 劉爾泰. 『實驗單方』(한국한의학연구원 소장본)
3. 劉爾泰. 『麟西聞見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인본)
4. 丁若鏞. 『麻科會通』(한국한의학대계 영인본). 여강출판사. 1994.
5. 黃度淵. 『醫宗損益』(한국한의학대계 영인본). 여강출판사. 1994.
6.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
7.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青城雜記』. <http://db.itkc.or.kr>.
8.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太醫院先生案』 「議藥同參先生案」. <http://jisik.kiom.re.kr/>
9. 국사편찬위원회. 『(인터넷)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10. 국사편찬위원회.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11. 한국보화연구원. 『居昌劉氏義士公派世譜』. 미상. 1988.
12.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를 통해 본 名醫 柳義泰의 자취 연구」. 『영남학』. 2009;16:1-34.
13. 구현희, 안상우. 「의료설화에 나타난 의학적 처치의 사실 성과 의미」. 『한국역사학회지』. 2010;23(1):11-22.
14.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15. 김두중. 『한국의학사문화대연표』. 탐구당. 1981.
16. 김영진. 「西山 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一考」. 『다산학』. 2008;12.
17.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18. 김호. 『조선의 명의들』. 살림출판사. 2007.
1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學術圖書刊行會. 1973(중보판).
20. 안상우 외. 『산청의 한의학 전통과 한의약 문화연구』. 연구보고서. 2009.